

The MICE⁺ *plus*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41
2018 Vol.

특집 MICE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토론회
제 2차 권역별 MICE 간담회
마이스 주도 성장 | 오성환 고충처리위원장

소식 서경문화
코지 모임공간

쑤민 서울관광의 새로운 시작, 서울관광재단
샌즈 리조트 마카오 '얼티밋 다운로드'
해외 MICE 박람회 교육 프로그램 참가 후기

정보 지역 특화 MICE 발전을 위한 공무원 교육
온라인 MICE 연수원 홈페이지 오픈





국제회의전담기구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 Korea MICE Association

한국MICE협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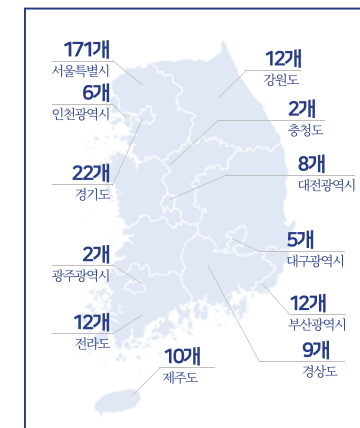
-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MICE 단체
- MICE 업계의 소통 창구
- 민·관·학 협력 역할 주도자
- MICE 해외 유관 협·단체 허브
- MICE 비즈니스 컨설턴트
- MICE 커리어 상담가



(사)한국MICE협회는 전국 단위의 유일한 MICE 단체입니다.

* 전국에 걸쳐 다양한 업종의 회원사가 분포되어 있으며 전국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 회원사 리스트 및 디렉토리 협회 홈페이지 참고



(2018. 8. 16. 기준 272개 회원사)

(사)한국MICE협회는 해외 MICE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MOU 체결: 일본 JCMA, 싱가포르 SACEOS, 중국 CMC, 괌 GVB, 태국 TICA, 말레이시아 MACEOS

* 해외 교류: 필리핀 TPB PHL, 대만 TECA, 홍콩·싱가포르 ICESAP, 말레이시아 MyCEB, 아시아태평양 AFECA, 태국 TCEB, 싱가포르 TTG Events

회원사 가입안내



사무국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15층
 Tel. 02-3476-8325 Fax. 02-3476-8449
 Email. kma@micekorea.or.kr
 Homepage. www.micekorea.or.kr



MICE는 세상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세계인이 만나는 드넓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내일을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간 더 마이스 통권 제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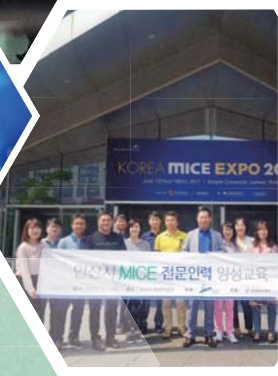
발행	(사)한국MICE협회
발행일	2018년 08월 28일
발행인	김응수
홍보위원장	서원준
홍보위원	강도용 김성태 김지환 서영호 신동재 신정미 윤은주 이선형 이정우 이정옥 차종대
주 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15 (사)한국MICE협회 tel. 02-6366-0716 fax. 02-3476-8449
편집 및 디자인	(주)디앤디프린팅 tel. 031-312-3892

* The MICE Plus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MICE협회에서 제작한 'MICE 고딕체'로 작성되었습니다.

CONTENTS

vol. 41

- 004 특집1 MICE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토론회
- 010 특집2 제 2차 권역별 MICE 간담회
- 012 특집기고 마이스 주도 성장 I 오성환 고충처리위원장
- 014 소식1 서경문화
- 015 소식2 코지 모임공간
- 018 줄인1 서울관광의 새로운 시작, 서울관광재단
- 020 줄인2 샌즈 리조트 마카오 '얼티밋 다운로드'
- 024 줄인3 해외 MICE 박람회 교육 프로그램 참가 후기
- 028 정보1 지역 특화 MICE 발전을 위한 공무원 교육
- 030 정보2 온라인 MICE 연수원 홈페이지 오픈
- 032 정보3 MICE 행사보험
- 034 정보4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
- 036 지식창고 한국MICE협회 도서 소개





“대한민국 MICE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린다”

MICE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토론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더 많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더욱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우리 MICE산업은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 보다 멀리,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모두가 뭉쳤다. 한여름 열기보다 뜨거웠던 토론회 현장으로 안내한다.”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의 문을 열자, 후끈 달아오른 열기가 느껴진다. 토론회 시작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지만 이미 빈 자리가 없다. 빼곡하게 앉아 토론회를 기다리는 참석자들 표정은 한껏 상기되어 있다. 장내를 둘러보니 참석자들의 낮이 익다. 업계, 학계,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모두 각기 다른 분야에서 MICE산업을 이끌고 있다. 한 자리에 모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자리다.

지난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과 한국MICE협회 주최로 MICE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일 융합관광산업과장, 고용노동부 김부희 청년고용기획과장 등이 함께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대학교 윤세목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희수 연구위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윤은주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허 준 교수 등 학계 및 연구원들도 함께 해 전문가의 시각을 더했다.

유관기관 및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에 띄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영길 부회장,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전봉애 회장,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을 비롯해 협회 회원사인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 한국관광공사 김배호 MICE기획팀장, (주)이즈피엠피 한신자 공동 대표, 인터컴 석재민 부사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창현 교수, 티에스엠(주) 서원준 대표, 서울관광재단 박진혁 단장, (주)베니카 박재성 대표 등도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MICE산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임을 체감하기 때문일 테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희수 연구위원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윤은주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관광분야에서 공공 분야와 민간이 어떻게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현재 MICE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MICE산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현실적인 의견부터 다양한 제안까지 발표됐다.

경청하는 참석자들의 모습은 진지했다. MICE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 기성세대가 하나하나 쌓아온 대한민국 MICE의 역사에 청년들의 꿈과 희망도 더해져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 모두가 같은 마음이다. 우리가 그러했듯, 청년들도 MICE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꿈꾸고 이뤄내길 바라는 어른의 마음이다.

일자리 문제는 MICE산업 육성에 있어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다. 우수한 인재들이 MICE업계에서 오래도록 일할 수 있길. 우리가 만들어둔 길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길.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댈 시간이다.

“정책을 수립할 때, 업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일 융합관광산업과장

“MICE산업은 미래 산업으로 매우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MICE산업에서 많이 생긴다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실제 업계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어려움이 많더군요. 업무환경, 경영상황 등 여러 애로사항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겠지요. 예산 집행 구도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구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PCO업계의 의견을 들으며 최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은 지자체 등 에 공유하고 권고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 무엇보다 기획 서비스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야겠지요.”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야말로 MICE산업에 든든한 지원 군 이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가치 정립과 입찰 구도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업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최근에는 MICE와 관련된 산업들이 참 중요하게, 인식 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며, 현재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실행 계획들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정책들을 수립할 때마다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내겠습니다.”

“인력양성과 산업발전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김부희 청년고용기획과장

“저희는 인력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년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 추세지요. 짧은 고용 기간과 높은 이직률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입니다. 위기죠. 때문에 현재 MICE산업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MICE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 MICE인들이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MICE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꿈을 펼치기에 아직은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다. 김부희 과장은 이어서 고용노동부의 두 가지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3년 동안 3천 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내일 채움에 가입한 기업이 이 정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용 인력들이 현재 2~3 년차가 되어가요. 다른 정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입니다. 작년 말 대비, 청년을 채용하면 1명 당 9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두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각각 1조, 7천 억의 예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는 산업 발전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MICE가 매력적인 직장이라는 것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알려야겠 지요.”

“업계가 체감하는 진짜 온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MICE협회 김응수 회장

“MICE업계에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합니다. 정규직 도 있고, 운영요원과 같이 일정 기간에만 고용하는 형태도 있지요. 앞서 소개해주신 고용노동부의 정책들도 앞으로 업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MICE업계는 인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지요. 일정 기간 아카데미 교육 후에도 업계로 채용이 이어지지 않고 다른 분야로 유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업계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청년들에게 MICE는 과연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 어쩌면 기성세대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진입장벽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존의 업계 홍보 방식을 바꾸어야 할 때다.

“이제는 기존과 달라야 합니다. 찾아가는 채용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지요. 대기업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설명회를 엽니다.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요. 또한 현재 는 PCO 업무에만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해 MICE업계 전 분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홍보와 교육, 인턴십을 접목해 지원 제도를 활성화 하면 업계 채용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짧은 근속연수도 그렇지요. 현재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겠지요. 또한 업계의 현장 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산업의 규모가 커져야 일자리도 늘니다.”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이사

“MICE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야 일자리도 늘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가 가능하지요. 산업 규모를 확대해 성장시키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ICE는 융복합 산업이다. 다양한 산업들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산업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크는 것이다.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는 경쟁만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산업 구조는 달라진 게 많지 않지요. 때문에 기존의 MICE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와 협회, 민간 등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규모의 성장과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지자체와 기관에서 인력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MICE산업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시점입니다.”

**“MICE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즈피애플 한신자 공동대표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지요. 앞서 발제에서 소개해 주신 내용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자를 개별 관광사업자로 한정된 기업 금융이 아니라 프로젝트성 금융 투자로 확대한다면 더욱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지요.”

직접 현장을 이끌고 있는 MICE인들은 MICE산업의 여러 면들을 모두 만난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기대되는 이유다.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를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면 좋겠지요. 또 해외 인턴운영과 취업 지원 정책 등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책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대규모의 행사를 치를 때는 해외 테크놀로지 기업과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테크놀로지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통해 많은 기회를 찾아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부 행사,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도 MICE 기업들이 동행한다면 좋겠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소개해 주신 두 가지 지원 사업을 저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습연계 및 일학습 병행제를 시행할 때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야 하지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기업에서 관련 정책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MICE업계는 다른 산업과는 분명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요. 이 점들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산·관·학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허준 교수

“학교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MICE산업으로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턴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턴십 이후 실제 채용이 중요합니다. 인턴십 과정에서 MICE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제도가 필요합니다.”

인턴십은 MICE산업을 맛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동시에 MICE를 소개하는 첫인상이다. 인턴십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 청년들에게 MICE의 진짜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관광벤처교육센터, 관광일자리센터 관련 이슈들이 있었죠. 여기에는 MICE일자리 기능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팅 테크놀로지 같은 새로운 MICE서비스도 속속 생겨나고 있죠. 관광을 전공한 학생뿐만 아니라 공학이나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MICE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산·관·학 연계로 학생들이 MICE산업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PCO기업 등의 주최자 교육을 통해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일자리 환경은 현실의 애로사항을 극복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베니카 박재성 대표이사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력직의 인력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의 선순환구조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부 외국계 회사의 경우 결제 기간이 최대 120일이 넘는 행사도 많지요. 결제 대금 지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사전 필요 자금을 대행사에서 우선 집행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연간 계약 파기 건수도 상당합니다.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현재 대행사들의 계약 파기 및 재계약 등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MICE의 진짜 매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티에스엠(주) 서원준 대표이사

“작년 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바뀌면서 비영리법인 협회와 학회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뿐만 아니라 이벤트 사업에도 입찰을 하고 있지요. 심사자로는 협회와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2차 권역별 MICE 간담회 경상권 개최!



○ 한국MICE협회는 지난 6월 8일(금)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 지역 협회 회원사와 업계 관계자를 모시고 '제2차 권역별 MICE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권역별 간담회는 6월 5일(화) 대전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권역별 MICE 간담회' 이후 두 번째이며, 충청·전라·제주 권역과 차별화된 경상권 지역만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 본 간담회는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지역의 협회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MICE협회,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 부산관광공사, 벅스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산관광컨벤션포럼,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창원컨벤션센터, 구미코, 지역 PCO와 여행사 등 실무책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 경상권 지역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는 크게 1)협회 교육 사업, 2)PCO 업계 입찰 경쟁, 3)지자체 및 센터, DMO 측면의 도시마케팅, 4)MICE 행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교육사업은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직자 대상 교육이 주로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어 지방에서는 참여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방 분권 개최 등 지역에 특화되고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지역 PCO 업계는 저가입찰, 언론사와의 경쟁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업계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지역 업체 육성을 위한 입찰 가점제도 필요성 등의 현실적인 해결방안도 제시되었다.

지자체, 컨벤션센터, DMO는 도시마케팅 측면에서 유치, 개최 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필요성, 컨벤션 대행이 아닌 기획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필요, 공무원 마인드 제고, KTX 노선 인천공항 연결 등이 중요 이슈로 거론되었다.

또한 협회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각각 개최하는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과 'Korea MICE Expo'에 대해서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건의되었다. 더불어 'MICE 권역별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마이스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협회는 본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국회, 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협회는 대정부 건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업계의 권익 대변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제3차 MICE 권역별 간담회'는 강원 지역으로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잘 모르는 것과 분명히 아는 것 마이스 주도 성장



오성환

/ (사)한국MICE협회 고충처리위원장
(주)이오컨벡스 대표이사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들어 가장 많이 들어본 말중 하나가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시킴으로써 결국 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내겠다는 현학적인 설명이 따라 붙는다.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건, 올해 들어서 만나본 우리 마이스 업계 대표들 모두 하나 같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UIA(국제협회연합)가 발표한 국제회의 개최건수를 기준으로 발표된 국가별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이 1위를 했고 도시별 순위에서는 서울이 3위, 또 부산은 세계7위를 했다고 홍보한다.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건, 올해 들어서 기껏해야 5백만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약 1억원 규모의 국제회의 대형 입찰에서도 PCO(국제회의 기획업) 업체가 최소 다섯 개는 몰려 들어 죽기 살기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더, 분명히 아는 건, 올해 들어서 우리 한국마이스협회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회원사들이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공정하지 못한 경쟁관계와 주최기관의 부당한 요구에서 비롯되는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은 협회가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있으니 그나마 자그마한 위안이 되고 있을 뿐이다.

혹시 알고 있는가? 이미 우리나라에는 수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벌써 열 개가 넘는 국제회의 개최시설(컨벤션센터)이 만들어져 있으며 또한 컨벤션 전공학과를 개설한 대학의 숫자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십여 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이스(컨벤션)를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숫자가 벌써 천개를 넘어섰다는 것도.

우리는 또 4차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이 시대의 핵심 가치가 '연결'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이야말로 마이스(컨벤션)의 본업이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마이스를 단순히 관광산업의 한 아류종으로 생각하는 무지와 편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고시생과 대기업 취준생으로 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술과 정보를 기계적으로 습득하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지도 모르는 시대에서 '사람'의 일자리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결코 '사람산업(Human Industry)'인 마이스(컨벤션)를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마이스(컨벤션)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복귀 시켜야 하는 이유를 아직 모르겠다면, 우리 모두에겐 희망이 없다.



기획·디자인에서 제작까지 —
(주)서경문화

저희 (주)서경문화는 다양한 고객의 needs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인쇄인쇄기 및 디지털 인쇄 장비를 갖추고 30년간 인쇄업체로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획,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이 사회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끈임없이 변화하고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경문화는 business의 독특한 수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인쇄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서경문화"의 인쇄 솔루션은 비용을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주요업무〉
- 기획 / 디자인 및 옵셋 상업인쇄물 제작
 - 디지털인쇄물(POD) 제작
 - 각종 패키지 인쇄제작(화장품, 약품 케이스 등)

- 〈주요실적〉
- 우정사업본부 <보험관련 매뉴얼>
 - 한국지엠주식회사 <서비스 매뉴얼, 카다로그>
 -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서비스 매뉴얼>
 - (주)월비스 <공무원시험 교재, 로스쿨 관련 교재 外>
 - GM KOREA <캐딜락 카다로그 제작>

- 방송대학교 <대학교재>
- 서울관광재단 <각종 홍보물 제작>
- 제일기획 <광고연감>
- 송학 <화장품 케이스, 케이스부착스티커>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41 은산빌딩 (주)서경문화
Tel. (02)2272-7003(대)
Email : skmh7003@naver.com
www.tbooks.co.kr



코지모임공간의 코지는 아늑한, 안락한의 COZY를 사용한 것이다. 이용하시는 고객이 편안함을 느끼고, 다시 사용하고 싶어지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2017년에 창업한 신생 회사지만, 꾸준히 발전하며 입지를 넓혀 가고 있는 회사다.

〈코지모임공간의 변화〉

작년 3월 코지모임공간 1호점 오픈, 그리고 그해 12월 2호점 오픈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어 나아가기 위해 1호점에 있던 8인실과 10인실을 없애고, 조금 더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20, 30, 40, 50인실로 바꾸었다. 2호점은 스터디그룹이나 과외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이용할 수 있게 2인실을 추가로 만들었다.

〈코지모임공간 시설〉

- 코지모임공간 강남역 1호점 : 강남역 3번 출구 바로 앞 위치. | 20인실/30인실/40인실/50인실
- 코지모임공간 강남역 2호점 : 강남역 8번 출구 삼성타운 뒤편 위치. | 2인실/4인실/6인실/12인실/18인실/20인실/24인실/120인컨퍼런스룸

〈앞으로의 코지모임공간〉

올해 하반기에 3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위치는 교대이

며, 역사와 매우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컨퍼런스룸과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회의 공간이 준비되어 모임 목적에 맞게 공간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코지의 브랜드화를 진행하려고 한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코지모임공간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78 준빌딩 14층(1호점)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42-4 재전빌딩 6,7층(2호점) /02-548-2590(1호점)/02-548-2560(2호점)
E-mail: cozymoim@naver.com





렌탈 그 이상!

렌탈은행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의 스타일을 분석해,
섬세하고 깔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축제 · 컨벤션 · 전시 · 이벤트 프로모션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렌탈은행과 함께하십시오.

자체인력 × 자체장비 × 자체기술
ALL IN ONE × MULTI PLAYER × PROFESSION

렌탈은행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축제 · 컨벤션 · 전시 · 이벤트 프로모션을 연결합니다.

ABOUT COMPANY

T. 1588-3639

F. 02-552-0850

WWW.RENTALBAN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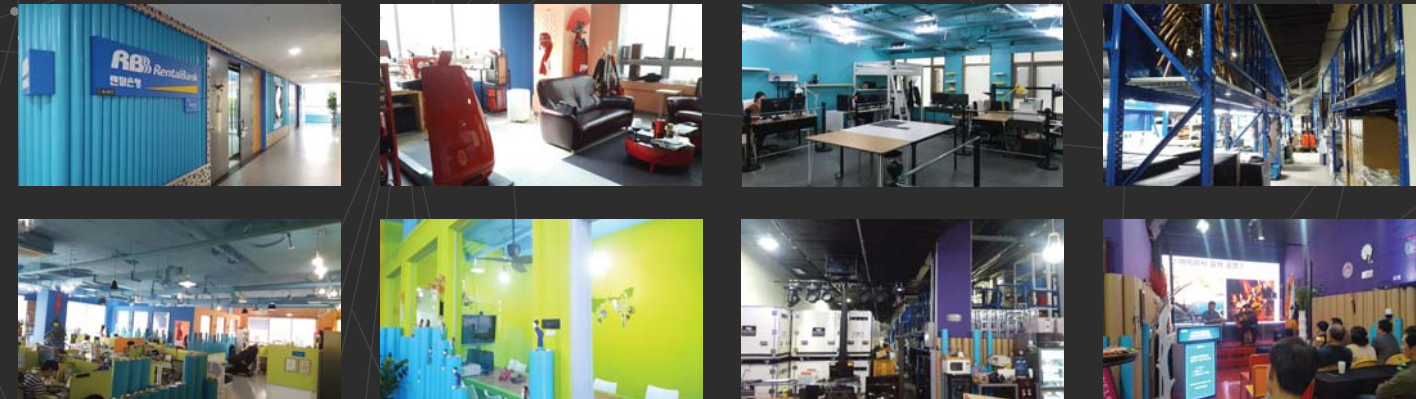
본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311호, 312호 (문정동, H비즈니스파크)

국제MICE기술원: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B123호 (문정동, H비즈니스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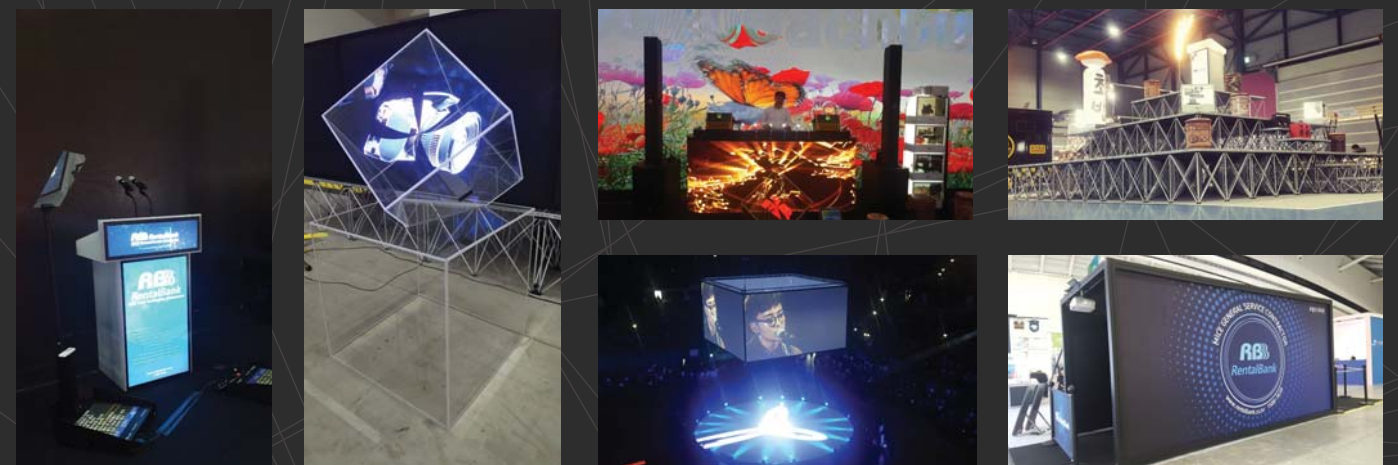
RBB RentalBank MICE General Service Contractor 렌탈은행(주)

RBB RentalBank INVENTIVE

RB's Panorama 렌탈은행 사업장환경



New RB Product



New RB Product



영상, 무대, 조명, 중계, 통역, 리깅, IT/OA, 맵핑, 홀로그램,
Wi-fi 솔루션, 특수효과, MICE App, MICE 디자인, 전시부스,
매니지먼트&플래닝, 하이브리드 컨벤션 시스템,
RF 게이트 & 비콘 시스템, 드론, VR, MR,
스마트 컨퍼런스 시스템, Webinar, MICE 토탈 프로덕트
비디오/보이스 컨퍼런스 시스템, 아웃도어 토탈 프로덕트



제7차 UNWTO 세계도시 관광총회

9월 16일(일)부터 9월 19일(수)까지 서울특별시와 세계관광기구(UNWTO)가 주최하는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체험경제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경제학자 조셉파인을 비롯해 세계 도시 시장, 국가 관광부처·관광청 대표, 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UNWTO) 회원기관은 물론 도시계획가, 건축가, ICT 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외 글로벌 관광 주요인사 500여 명이 서울로 모여 '2030 도시관광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가상현실, 드론관광, AI, 공유숙박 등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도시관광의 미래를 예측하고 서울이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행사명: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7th Global Summit on Urban Tourism)
- 일 정: 2018년 9월 16일(일)~19일(수)
- 장 소: 서울 신라호텔
- 주 제: 2030 도시관광 미래비전 (A 2030 Vision for Urban Tourism)
- 주 최: 서울특별시, 세계관광기구(UNWTO)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 공식언어: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 홈페이지
- www.7globalsummiturbantourism.kr
- <http://destination.unwto.org/7th-global-summit-urban-tourism>



2018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

올해로 3회를 맞는 〈2018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이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와 연계하여 9월 18일(화)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은 모두가 행복한 관광:미래 공정관광을 주제로 총회의 공정관광 세션(세션 4), 공정관광 기획세션, 테크니컬 투어로 구성되어 관광의 질적인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논의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 행사명: 2018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 (Seoul International Fair & Sustainable Tourism Forum 2018)
- 일 정: 2018년 9월 18일(화)
- 장 소: 서울 신라호텔
- 주 제: 모두가 행복한 관광 : 미래 공정관광 (Fair and Inclusive Tourism : Building Cities for All)
- 주최·주관·후원: 서울특별시·서울관광재단·UNWTO (세계관광기구)
- 홈페이지
- <http://www.seoulfairtourismforum.net/>

* 문 의: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및 2018 서울공정관광 사무국 : 7thgsut@gmail.com



서울관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첫 걸음 서울관광의 새로운 시작, 서울관광재단

“서울의 매력을 과연 셀 수 있을까.
그 수많은 매력들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서울관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치열한 고민 끝에
서울관광재단이 지난 5월 1일 탄생했다.
‘가치관광, 같이서울’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더한 서울관광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곳이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현대화된 도시. 숨겨진 매력이 넘쳐난다. 이제부터 그 매력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지난 8월 21일, 서울관광재단은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단의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생활관광시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민과 내국인을 중심으로 ‘생활관광’ 시대를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늘어난 여가생활과 새로운 관광에 대한 수요 덕분이다. 이에 서울관광재단은 시민과 함께 서울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전문기관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향후 관련 정책과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낼 예정이다.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를 카드 한 장으로 돌아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외국인 전용 카드였던 ‘디스커버서울패스’의 ‘서울시민판’ 출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관광정보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서울시민 여행지원센터(가칭)’ 운영계획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관광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마케팅도 지원한다. 궁극적으로는 콘텐츠 개발자와 관광 마케터를 육성하고

MICE산업의 전문가로서 서울관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울관광청(聽)워크: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1주일간의 릴레이간담회는 관광 업계 및 시민들과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생활관광 시대를 열어가길 서울관광재단의 새로운 목표들 속에 서울 관광은 이제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이다. 서울은 또 어떤 매력으로 우리를 맞이할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





120개국 컨벤션 및 전시 전문가 초청해 주요 산업 이벤트 선보인
 샌즈리조트마카오 ‘얼티밋다운로드 - 아시아최고 MICE 개최지’ 진행

샌즈 리조트 마카오는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총 3박 4일 동안 전 세계120개국 컨벤션 및 전시 전문가와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얼티밋 다운로드 - 아시아 최고 MICE 개최지 (The Ultimate Download - Asia’s Leading Meetings & Events Destination)’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 참가한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인도,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미팅 전문가 및 언론 매체는 샌즈 리조트 마카오의 폭넓은 회의 시설, 서비스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샌즈 리조트 마카오의 마케팅 및 브랜드 관리 부문 부사장 루스 보스턴(Ruth Boston)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전형적인 피더 시장(feeder market)과 비교하여 미국의 미팅 기획자들의 미팅 및 컨퍼런스 비즈니스 예약률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주류였던 시장에서의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유럽의 수요 또한 2020년까지 기대 이상을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샌즈 리조트 마카오 산하 호텔의 3대 주요 시장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폭넓은 관심은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 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루스 보스턴은 이어 “특히 얼티밋 다운로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 메시지 중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 유적지를 포함한 마카오의 아름다운 문화 유산이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당사 미팅 시설의 종류와 퀄리티 뿐만 아니라 마카오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미팅을 위한 선택을 제안하는 샌즈 리조트 마카오의 친환경 프로그램 샌즈 ECO360°를 참가자에게 중점적으로 소개하여, 최근 MICE업계에서 급 성장하는 친환경 추세를 반영하였다.

이 밖에도 총 4일의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얼티밋 다운로드 - 하이라이트
 (The Ultimate Download - Highlights)

봉 비앙 웰컴 칵테일 파티
 (Bon Vivant welcome cocktail party)

이번 ‘얼티밋 다운로드 - 아시아 최고 MICE 개최지’ 행사는 파리지역 마카오의 파리지역 볼룸에서 프랑스 테마의 웰컴 칵테일 파티 봉비앙(Bon Vivant)으로 막을 올렸다. 레드, 화이트, 블루 색상으로 꾸며진 케이터링은 물론 환상적인 인-하우스(in-house) 밴드인 블루 노트(Blue Note)의 공연을 선보였다.





얼티-마트 쇼케이스(Ulti-Mart showcase)

얼티-마트는 웨라톤 그랜드 마카오 호텔, 코타이 센트럴의 필러레스(Pillar-less) 주니어 볼룸인 텐산(Tian Shan)에서 15개 부스로 꾸러진 미니마트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참가자들은 새롭게 런칭한 이벤트 장소인 일프라토(Il Prato)에서 이른 아침 요가와 태극권, 부트캠프에 참여하거나 마카오를 발견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비스포크 아웃팅 활동에 참가했다.



얼티밋 커넥트 컨퍼런스(Ultimate Connect conference)

얼티밋 커넥트 컨퍼런스는 미니 컨퍼런스와 MICE 업계의 화제를 다루는 Q&A 세션 그리고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필드의 리더들이 선보이는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되었다.

초청 연사로는 쿡 메디컬(Cook Medical) 아·태 지역 여행 및 이벤트 부문 이사 리사 네빗(Lisa Knevitt)이 참석해 challenging expectations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잭 몰튼 월드와이드(Jack Morton Worldwide) 중화권 지역의 전무 이사(EVP) 나탈리 애커먼(Natalie Ackerman)이 브랜드 경험 대행사가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뉴 스킨(Nu Skin) 차이나의 트레이닝 부문 이사 스텔라 장(Stella Zhang)은 경영 및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닝과 인센티브 행사 기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도 현재 미팅 트렌드,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와 건강 및 지역사회 지원 관련 미팅 아젠다 증가, 지정학적인 사건들과 안전 및 보안 이슈가 국제 회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법 및 지적 재산권 보호의 효과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얼티밋 셰프 컴퍼티션 (Ultimate Chef competition)

TV 요리 쇼에 영감을 받은 얼티밋 셰프 컴퍼티션에는 10개국 의 30명 이 참여, 총 8개 팀을 이뤄 “미스터리 박스” 요리 도전에 나섰다. 레스토랑급의 음식으로 심사위원단을 놀라게 한 일본과 홍콩 대표단으로 구성된 팀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호주가 2위, 중국이 3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얼티밋 셰프 컴퍼티션은 독립형 행사로 기획될 예정이며, 다양한 팀 빌딩 액티비티 및 이벤트와 통합되어 운영될 것이다.



얼티밋 쇼 타임 갈라 디너(Ultimate Show Time gala dinner)

‘얼티밋 다운로드 - 아시아 최고 MICE 개최지’의 대미를 장식한 얼티밋 쇼 타임은 화려한 갈라 디너 쇼로 맛있는 음식과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공연을 선보였다.

갈라 디너 전에는 흑백 테마 아래 모든 참가자들이 베네치안 스타일의 마스크를 착용했고 피아노 연주와 샴페인을



서빙하는 공중 곡예 공연 등을 선보였다.

이후 샌즈 리조트 마카오의 마케팅 및 브랜드 관리 부문 부사장 루스 보스턴(Ruth Boston)은 연설을 통해 얼티밋 다운로드의 주요 목적은 샌즈 리조트 마카오가 지역별 또는 국제적인 미팅, 컨퍼런스, 인센티브 투어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선보이기 위함 일 뿐만 아니라 “활기차고 매력적인” 목적지로서의 마카오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함임을 전했다.

덧붙여 “마카오는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이 도시를 찾는 관계자들에게 특별하고 화려한 배경이 된다. 지난 10년동안 마카오와 샌즈 리조트 마카오는 세계 무대에서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함께 개발하며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재기 넘치는 엔터테인먼트 공연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옷을 갈아입는 호주 출신 듀오, 소울 미스틱(Soul Mystique)과 노래하는 셰프와 웨이터, 뱃사공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오페라, 그리고 물랑 루즈 스타일의 댄스 안무 등 샌즈 리조트 마카오 소속의 다양한 탤런트 공연으로 계속되었다. 이 후 세인트 레지스 바에서 열린 익스클루시브 애프터 파티를 통해 잊지 못할 이브닝 행사 경험이 제공되었다.



샌즈 리조트 마카오(Sands Resorts Macao) - 샌즈 차이나(Sands China)의 복합 리조트 도시

샌즈 차이나(Sands China Ltd.)는 마카오 복합 리조트를 보유한 리조트 개발 운영 회사다. 마카오 콜로안(Coloane)과 타이파(Taipa)섬 사이 매립지역에 조성된 샌즈 리조트 마카오는 일일 여행 시장을 비즈니스 및 레저 관광객을 위한 복합 리조트 도시와 국제 허브로 탈바꿈 시켰다.

샌즈 리조트 마카오는 파리지영 마카오의 개장으로 약 13,000개의 호텔 객실과 스위트 룸, 세계적인 공연은 물론 유명 브랜드의 상품들이 진열된 850여개의 면세 상점에서의 호화로운 쇼핑, 그리고 아시아 주요 컨퍼런스 및 전시를 위한 회의와 전시 시설, 교통 서비스, 미술관 레스토랑과 바, 라운지를 포함하는 150개 이상의 다이닝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출장개요

- 프로그램명: MPI WEC 2018
- 기간: 2018. 6. 2(토) ~ 6. 5(화)
- 장소: Indiana Convention Center, 인디애나폴리스, 미국
- 참가자: 경기관광공사 마이스부로 이호진 대리

○ MPI WEC 행사장은 “회의 기획을 멈추고, 경험 디자인을 시작하라(Stop planning meetings, start designing experiences)”라는 모토에 걸맞게, “혁신”, “소셜”, “체험” “리더십” 네가지 컨셉의 “빌리지”로 총회를 구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시간표상의 교육이 아니라 특정 공간의 경험처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독특한 점은 전시장 안의 이 모든 구성이 높은 가벽설치 없이 열린 공간이었으며, 구조물의 경우 음향, 조명, 무대 정도의 사양이었다는 것이다. 기조강연이라 할 수 있는 팸 랠리(PEP Rally : 미식축구나 농구등의 경기 사이에 치어리딩 및 응원을 하는 단합활동을 의미) 조차도 조립식 스탠드석을 사용하여 참가자를 모두 수용하면서도 만찬이나 행사 필요에 맞게 테이블을 배치할 수 있게끔 유동적으로 공간을 활용했다. 또한 개막행사, 점심행사, 폐막식에서도 메뉴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춤추고, 직접 미식축구 공을 던지고, 자동차 대량생산이 처음 시작된 인디애나 폴리스 자동차 트랙에서 차를 타보는 경험을 제공했다.

○ MPI WEC의 내용부분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다분히 미국식이면서도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연사들이 공연용 핀마이크를 사용하고, 주요행사가 TV 쇼처럼 진행되는 것은 북미 MICE 이벤트 관련 행사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 MPI WEC 역시 메인 프로그램의 경우들에서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행사의 개폐막식부터, 매일 오전 시작되는 “팸 랠리(PEP Rally)” 진행을 맡는 메인 호스트는 여성 코미디언이었고, 이벤트 플래너들을 위한 신박한 상품을 홍보하는 “핫 리스트(Hot List)” 코너는 단순한 상품소개가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쇼, 아카펠라에서 스탠드업 코미디까지 보여주며 참가자들을 매료시켰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재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SNS를 통해서도 2-3차 언급되는 효과를 낳았다.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자체가 동향이자 정보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때로는 함께 웃으면서, 때로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교육과 네트워크가 주된 총회이기 때문에 빌리지 테마마다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 시간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다. MPI WEC 교육프로그램을 들으며 느낀 점은 참가자들의 MICE 행사 기획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으면서도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준비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4가지 컨셉에서 파생된 강연과 워크숍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듣고싶은 교육일정을 짜는 것이 효율적이다. 개인적으로는 북미 MICE 시장의 트렌드와 동향, 북미 행사 기획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관련 역량강화 강연을 주로 들었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북미 바이어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역을 홍보할 수 있을 SNS 마케팅 관련 강연이 유익했다.

○ VR 카메라로 메뉴를 촬영하고, 특수고글을 활용해서 뉴욕에 있는 바이어에게 LA의 메뉴를 VR로 보여줄 수 있는 제품소개가 있었는데, 광역에 걸쳐 다양한 장소의 옵션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 적합한 마케팅 톨이라고 생각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VR 메뉴 홍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하고 있어 연계하여 사업계획 반영을 고려하고 있다.

○ Run/Walk 혹은 요가 프로그램은 구미주 MICE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 같다. 대체로 바쁜아침에 진행되지만 참가자 수도 제법 있다. 참가자들의 국적과 문화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겠지만, 달리기나 걷기를 통해 행사장 바깥을 걸 잃을 염려 없이 안전하게 둘러볼 수 있고, 같은활동을



통해 다른 참가자들과 쉽게 섞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항상 참가하는 편이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구미주에서 온 참가자가 다수라면 부대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비용이나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지역을 효율적으로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행사가 갖고있는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식사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리셉션이나 만찬이다. MPI WEC 에서는 이런 때 테이블 위의 카드업서 등으로 협력사의 기여를 상기시키고, 셀피보드처럼 얼굴에 대면 명사인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소도구들을 두면서 참가자들이 식사시간에 어색함을 깨고, 대화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소소한 아이템들을 배치했다. 이 역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요소가 아닌가 한다.

○ “이벤트 플래너들을 위한 이벤트 기획” 한다는 것은 “요리사들을 위한 위한 요리 만들기” 같은 상황이 아닐까. 이벤트를 업으로 하는 참가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MPI WEC는 강연뿐 아니라 기획/운영까지도 일정수준 이상을 보여줘야 하고 실제로 그랬다. 크지 않은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의 MPI WEC 참가자들을 위한 독자적인 라운지를 만들고 등록(벤티수령)-교류-이동의 편의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행사를 ‘빌리지’ 컨셉으로 구성 하는 참신성과 열린 설정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매끄러운 운영이 인상 깊었다.

○ IMEX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바이어를 MPI WEC에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녀는 MPI WEC 참가소감을 물으며 “아주 북미적인 행사”를 보고있는 것이라고

했다. 소속 챗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주제로 된 별도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머나먼 한국에서 참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었다. 그러나 MPI WEC 참가를 통해 국제회의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ICCA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순회전을 하는 북미 회의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을 깊이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던 것은 좋은기회 였다고 생각한다.

○ MPI WEC 행사를 보면서“차기행사도 재등록 하고 싶은 회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MICE 분야는 유행이 빠르게 변하기에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도 또 운영이 세련되어야 하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MPI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가자들이 바쁜 교육 일정속에서도 ‘신기해 하는 순간’, ‘함께 웃는 순간’을 꼭 만들어내는 노하우들이었다.





출장개요

- 프로그램명: Singapore MICE Forum 2018
- 기간: 2018. 7. 24.(화) ~ 7. 25(수)
- 장소: 싱가포르 Victoria Theater & The Art House 등
- 참가자: 백스코 김혜빈 대리



프로그램 행사 일정

7월 24일(화) 교육 세션	7월 25일(수) 교육 세션
<p>▶ Plenaries-Opening</p> <p>- 오프닝 공연(LED 퍼포먼스)</p> <p>- The future is Human centric 외 총 4명의초청 연사강연</p> <p>▶ Breakout(1,2)</p> <p>- Business model innovation 외 각 주제에 맞는 강연 선택후, 질의응답</p> <p>▶ Breakout(3,4)</p> <p>- Transforming your organization 외 각 주제에 맞는 강연 선택후, 질의응답</p> <p>▶ Plenaries</p> <p>- Fostering Human Interactivity 외 총 3명의초청 연사강연</p>	<p>▶ Plenaries</p> <p>- Curation made in Singapore 외 총 3명의초청 연사강연</p> <p>▶ Breakout(5)</p> <p>- Digital talent 외 각 주제에 맞는 강연 선택후,질의응답</p> <p>- 소규모 워크샵 개최</p> <p>▶ Plenaries-Closing</p> <p>- Future of Communities 외 총 2명의초청 연사강연</p>
<p>▶ Option</p> <p>- Lunch&Workshop(미등록)</p> <p>- Dinner(등록)</p> <p>*센토사 sunset beach 이동</p>	

프로그램 주요연사 및 내용

- ▶ Oscar Cerezales (COO, Asia Pacific, MCI Group)
- 행사의 대표이자 모든 행사의 진행을 역임함
- 스페인 바로셀로나 출신으로, 25년간 업계 경력
- MCI 근무하면서 31개국 2,100명의 직원들과 Asia

Pacific 지역을 맡아 근무해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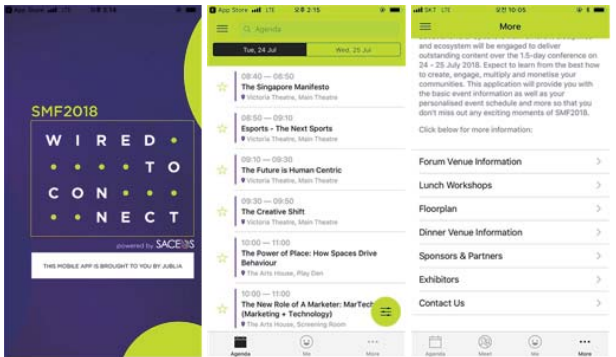
- ▶ Aaron Hung (Senior Director of Partnerships, APAC, TripAdvisor)
- Tripadvisor's 성공적인 전략과 브랜드 이미지화에 대한 주제로 강연
- 주요 온라인 여행사, 호텔, 항공사, 정부 관광공사, 미디어들과 연계하여 최적의 파트너 조건을 맞춰 온라인 상에서 최고의 여행사이트로 자리매김 함
- 꾸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국제적인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함
- ▶ Karen Bolinger (CEO, Melbourne Convention Bureau)
- 호주 멜버른 컨벤션 뷰로의 대표로 아시아의 MICE산업 발전 방향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강연
- 아시아 관광방문객수의 꾸준한 증감을 바탕으로 아시아 MICE 뷰로의 성장을 시사함
- 아시아 국가별 강점을 살리되 참여자로 하여금 1)비용 절감 2)새롭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발굴 3) Social sharing 가능(인터넷, 무료wifi, 의사소통) 4) 창의적인 경험 5) 편안한 느낌의 도시 이미지를 강조하여 베뉴 마케팅 전략을 소개함
- ▶ Martin Enault (CEO, APAC, C2 International)
- 업계 18년 경력으로 호주 멜버른에서 C2 행사를 이끌어 옴
- C2 행사는 주요 기업의 임원, SENIOR를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한 회의를 다루고 있음

- C2 행사의 컨셉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비즈니스 매칭을 이루어내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페스티벌 형식의 세미나를 이끌어감 (글로벌 트렌드 인지)
-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제안하고, 직원들로부터 도출된 독특한 아이디어로 각국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들을 운영함
- 운영 웹사이트: <https://www.c2melbourne.com/>
- ▶ Manisha Seewal (Head of Marketing, Tokio Marine Insurance Singapore Ltd)
- 싱가포르 '토키오 보험회사' 마케팅 본부장으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강연
- 싱가포르인의 건강 배경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SNS (페이스북 주로 활용)를 적극 활용하여 보험가입 창구의 역할로 자리매김함
- 마케팅 핵심전략으로 가입질문의 최소화(3건 내외), 기업의 캐릭터 적극 활용, Siri(아이폰)서비스와 같은 친근한 대화법 시스템 개발을 도입함
-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기본 질병 및 관심사를 조사함으로써 백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개발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음

사전 공지를 통한 행사 어플리케이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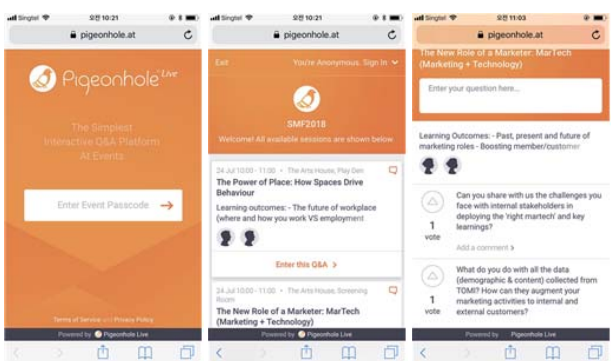
행사 개최 한 달 전부터 DM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홍보하였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세세한 행사 일정부터 위치 안내까지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이지만 반응형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등록이 가능하였다. 사전 공지와는 다르게 급하게 제작한 느낌이 있었지만, 제작의 목적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 및 관심사를 작성해 두면 상호간 신청을 통해 회의 시간을 맞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제작함으로써 단순한 포럼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 행사로 거듭나기엔 충분한 어플리케이션이었다고 생각된다. 500여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만족도 제고 및 네트워킹을 위해 행사전용 어플리케이션 구축은 참가자로 하여금 행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싱가포르 컨벤션뷰로 측과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담당자와 비즈니스 관련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 행사인 만큼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상호 네트워킹이 어려울 수 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현 시점에 맞게 잘 풀어 나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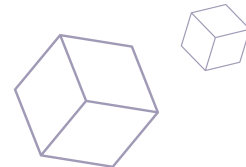
<어플리케이션 화면> <행사 스케줄표> <기타 정보>

강연중 웹사이트를 통하여 개별 질문 등록

강연에 대한 질의사항을 즉시 등록하여 강연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강연 시작 전 매번 스크린에 하단의 그림과 같이 웹사이트 주소에 대한 경로를 알려주곤 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강연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질의 내용을 등록하며, 연사가 스크린을 보고 해당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사는 강연에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었고, 참가자는 즉문을 통하여 연사와 소통할 수 있었다. 주최자의 입장에서 행사를 진행해오다가 직접 참가자가 되어보니 행사 기간 내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연사와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컨택 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행사 진행 중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었다고 생각된다. 해당 사이트는 본 행사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다른 행사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본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에 같이 활용하였다면, 접속에 더욱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일회성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자유로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유사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 참가자 인증 ▶ 2. 강연리스트 클릭 ▶ 3. 질문 등록



지역 특화 MICE 발전을 위한 공무원 교육

“ MICE의 꿈은
여러분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



추진배경

- 대한민국 MICE 산업은 MICE 목적 외래객 수 증가('11년 95만 명 → '15년 156만 명), 1인당 소비액 지속 증가('11년 \$2,585 → '15년 \$3,127) (문화체육관광부, 2017) 및 국제회의 개최 순위 세계 1위(2016년~2017년 2년 연속, UIA 기준)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 하면서, 이제는 MICE 주요도시 뿐 아니라 지자체와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에서도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의 주요 전략으로 MICE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MICE 산업은 융·복합 글로벌 산업의 플랫폼으로서 지역 핵심산업과의 융복합, 글로벌화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농촌 활력, 국민 관광을 극대화 하며, 지자체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안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MICE 행사는 국내외 MICE 참가자 및 관광객을 유치 함으로서 지역과 도시를 다방면으로 마케팅 할 수 있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따라 광역도시 뿐 아니라 전국단위 지자체의 주력·강점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진목적

-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MICE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공무원의 MICE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현장경험이 중요합니다.
- 지역 특화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교육 과정 개설과 지속적인 양성 교육을 통해 지역 공무원의 MICE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다양한 산업이 MICE와 융복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내용

- (사)한국MICE협회는 지자체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MICE 특화 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무자 중심의 우수한 강사풀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분야별 MICE 전문가 특강 (2~4H) 프로그램도 준비 되어 있으니 필요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협회는 온라인 MICE 연수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MICE 입문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MICE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연계 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 MICE 기본 과정 14차시 개발(완료)
 - MICE 심화 과정 21차시 개발중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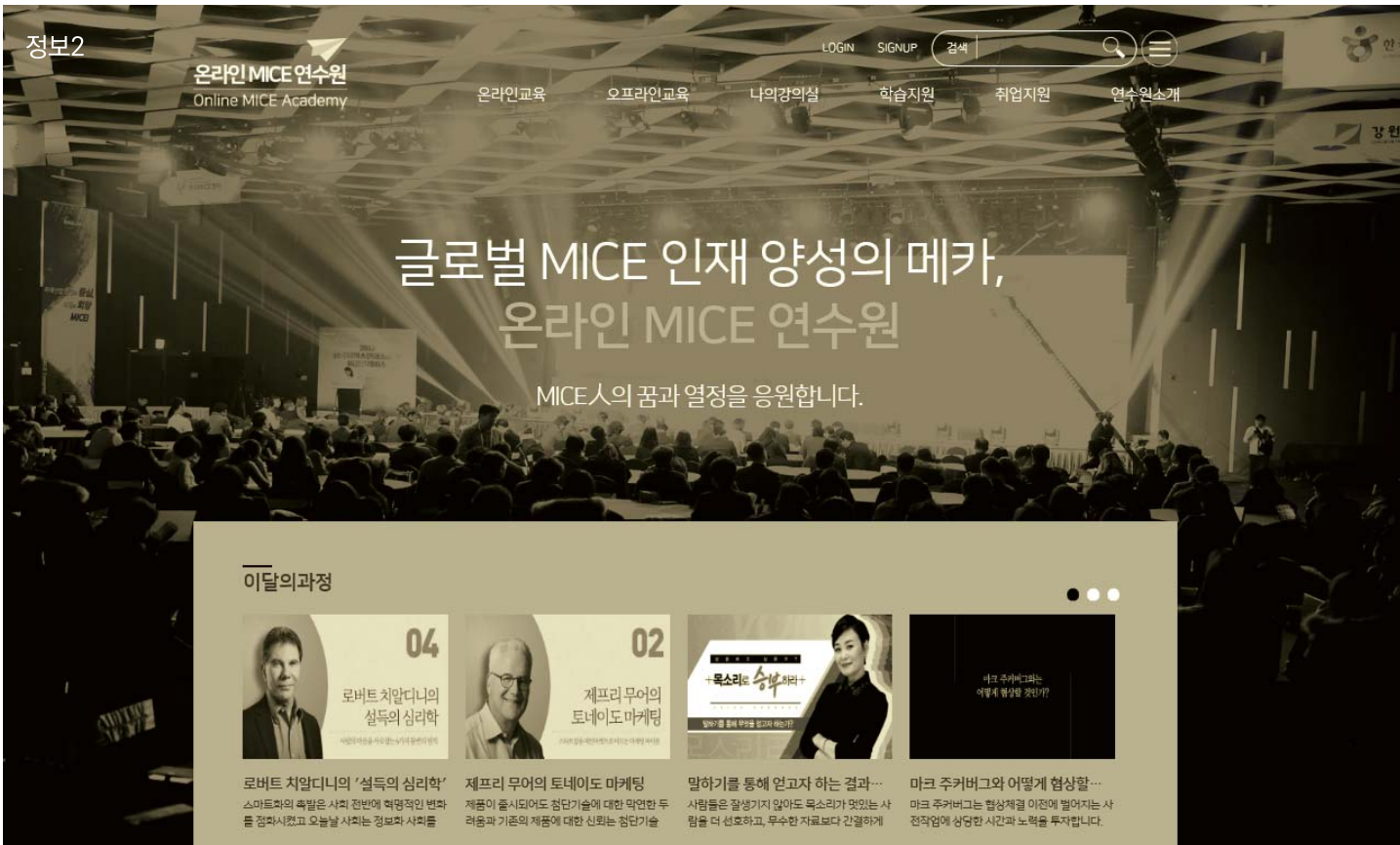
- MICE에 대한 기초 이해, 행사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 지역 특화 MICE 전략 수립, 미디어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업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MICE 행사 현장견학을 연계 실시하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지역 MICE 행사에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 MICE 산업 특강 의뢰 및 과정 신설 문의
| (사)한국MICE협회 교육연구팀 김수선 파트장
| Tel. 02-3476-8327
| Email. education@micekorea.or.kr





(사)한국MICE협회, 온라인 MICE 연수원

홈페이지 오픈

www.e-micekorea.or.kr

1

온라인 MICE 연수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

2

MICE 과정 또는
공통 소양 콘텐츠 신청
(매주 기수 별 모집)

3

신청 후 차주에
교육 콘텐츠
수강 가능

4

수료한 교육 콘텐츠는
이후 자유롭게
열람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MICE협회는 MICE업계 입문자·종사자에게 이러닝 콘텐츠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단계별 교육 체계를 통한 자격 관리를 위해 ‘온라인 MICE 연수원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온라인 MICE 연수원은 PC와 스마트폰 등 모든 단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협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온라인 과정은 MICE 산업 이해, 뷰로, 컨벤션 센터, 의전, 식음료, 참가자 관리 등 업종별 기본적인 직무를 배울 수 있는 ‘MICE 기본 과정’ 14차시와 스피치, 태도, 마케팅, 심리학, 협상 등 업무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공통 소양과정’ 10차시가 준비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가입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MICE 특화 과정’ 또한 금년도 말까지 제작되어 21차시 분량이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회의기획 내용을 토대로 제작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밖에도 ‘한국MICE아카데미’, ‘신입사원 OJT교육’ 등 기존 협회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수시로 교육 프로그램과 공지사항, 준비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료증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MICE 연수원 홈페이지 주소
www.e-micekorea.or.kr

〈온라인 과정 목록〉

No.	구 분	주 제
1	MICE 기본과정 *MICE 산업 이해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교육 과정	1. MICE산업 현황 및 최신 동향 2. 컨벤션뷰로의 역할과 국제행사 유치 마케팅 3. 컨벤션 기획/운영 실무와 직무 이해 4. 전시회 기획/운영 실무와 직무 이해 5. 컨벤션센터의 기능과 업무, 시설운영 및 사업현황 6. 컨벤션 등록 및 숙박업무 관리 7. 국제행사의 의전운영 및 관리 8. 식음료 업무와 테이블 매너 9. 행사 기자재 및 시스템 운영과 관리 10. 컨벤션 현장요원 운영 및 관리 11. 여행사 업무와 인센티브 투어 실무 이해 12. 지방도시의 국제행사 유치 성공사례 (1) 13. 지방도시의 국제행사 유치 성공사례 (2) 14. 성공적 국제행사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2	MICE 심화과정 (예정) *NCS 내용을 기반으로 한 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별 심화 교육 과정	1. 회의 유치 2. 신규 회의 개발 3. 회의 개최 기획 4. 회의 예산 관리 5. 회의 후원 유치 6. 회의 프로그램 설계 7. 회의 홍보 및 마케팅 8. 회의 제작물 기획 관리 9. 회의 인력 관리 10. 회의 현장 조성 11. 회의 위기 관리 12. 사후관리 13. 회의 등록 및 숙박관리 14. 의전·수송·관광·식음료 관리
3	공통 소양 과정	1. 마크 주커버그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2. 마크 주커버그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3. 십 리를 걷게 만드는 동선의 비밀 4. 사람의 기억 속을 파고드는 이미지의 비밀 5.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6.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7. 제프리 무어의 토네이도 마케팅 8. 인맥은 한 번의 클릭으로 오지 않는다 9. 나만의 목소리를 찾는 법 10. 말하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11.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12. 신경 끄기의 기술 13. 블록체인 혁명 14. 말 그릇 15. 블루오션 시프트 16. 전체를 보는 방법 17. 콘텐츠의 미래 18. 라플란드의 밤 19. 리더의 명화수업 20. 내가 나에게

MICE 행사 보험



MICE 행사 보험이란?

- MICE 행사 보험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에 대해 (사)한국MICE협회가 'MICE행사보험사 (한화손해보험)'와 '회원사'를 연계 함으로써 회원사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 보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 MICE 행사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며, 협회 회원사는 행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보험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절차로 보험 가입 및 지급이 가능

운영 프로세스



가 입	① MICE 행사 보험 안내	영업배상책임보험(행사배상) 설문서 제공
	② 보험가입 의뢰	설문서 (행사 개요 및 인원내역 등) 이메일 송부
	③ 각 행사별 보험료 안내	선택 가입 담보 및 가입금액에 근거한 행사별 보험료 안내
	④ 보험료 납입 및 계약 확정	각 행사 보험료 납입 후 계약 확정 및 증권전달
보 상	①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사고발생 내역 및 보험금 청구 접수
	②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접수 내역에 대한 사고 조사 실시 및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

혜택 및 상품 내용

보험 가입 혜택	다양한 RISK 담보	스텝 및 참여 고객에 대한 각종 상해 및 주차장배상, 행사취소시의 위험분산, 입출국시 위험(여행자보험) 등		
	손해사정 신속성	MICE 협회 전담 보상직원 및 손해사정인 배정		
	보험료 절감	향후 개별보험의 단체성 보험가입 프로그램 구축으로 할인요소 반영		
상 품 내 용	상품	보험기간	납입	비고
	행사종합보험	행사기간	일시납	관람객 담보
	영업배상책임			관람객 담보
	여행자보험(국내,국외)			국외행사 및 외국인 참여행사
	단체상해			행사 준비요원 담보

가입 방법

영업배상책임보험(행사배상) 설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계약이 완료되면 MICE 행사 보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가입대상 : MICE 행사 주최 및 운영 기관 또는 단체
- ▶ 신청기간 : 행사기간 일주일전 까지
- ▶ 가입방법 : 홈페이지에서 행사배상 설문서 다운→서류 이메일 제출→청약서(보험료)확인→보험료 납입→계약 확정 및 증권 전달
- ▶ 제출서류 : 행사배상 설문서 1부, 행사 개요서(프로그램)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문 의 : 한국MICE협회 민다미 파트장 (Tel. 02-6366-0715 / E-mail. insurance@micekorea.or.kr)
- ▶ 홈페이지 : www.micekorea.or.kr

한화손해보험 소개



- 1

신용과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
한화그룹의 정신인 '신용'은 고객에게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생기는 믿음이며, '의리'는 고객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도리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고객에게 신용과 의리를 지키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2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기업
2009년 부터 해온 임직원 사회봉사단 운영, 전직원 사회공헌 기금 후원(매칭그랜트). 그리고 안전문화 캠페인과 재난 구호 활동 등 고객과 '함께 멀리'라는 한화손해보험의 고객동반 성장 슬로건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3

고객서비스 우수기업
한화손해보험은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3대 서비스 품질 인증 (CCM, 콜센터서비스, 한국서비스품질 우수 기업인증)을 모두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서비스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4

재무 건전성 우수기업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AM Best社로부터 재무건전성 A-(Exellent)를 획득하였고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AA-를 획득하였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하실 수 있도록 건강한 재무구조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업영역

재산종합, 건설공사, 선박/적하, 배상책임, 단체상해, 해외여행, 사이버, 신종보험 등 기업의 모든 위험 보장

고객과 함께 동반하며 고객의 가치발전에 공헌하는것 한화손해보험의 목적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위험을 진단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실천우수기업

고객서비스
품질우수기업

A.M. Best
A-
(Excellent)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 안내문

MICE CONCIERGE DESK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

(사) 한국MICE협회는 MICE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MICE 개최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MICE 행사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ICE 산업 및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운영 기회를, 참가자 및 방문 외국인에게는 최고의 환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스크 주요 효과

- MICE 행사 주관사 및 PCO, 비즈니스 기업 등의 영접 비용 절감
- 데스크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추가 인력 비용 절감, 원활한 행사 운영 및 환대 서비스 지원
- 국내 MICE 행사 참가 외국인 및 비즈니스 관련 방문객 환대 서비스 제공으로 MICE 유치 경쟁력 강화 및 성공적인 비즈니스 효과 기대
-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 및 숙박 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참가 안내
- 성수기 기간 동안 개별 데스크 임차 공급 부족 해결

주요 서비스

- 행사 또는 기업소개 리플렛 비치 가능
- PDP 활용하여 행사명 또는 환영 문구 표시
- 접수된 주관단체 요청사항에 맞는 참가자 교통 안내
- 리무진서비스 및 렌터카 예약 정보 안내 지원 서비스
- 행사별 지정된 숙박 관련 정보제공 및 기타 숙박 정보안내
- 행사 참가자 요청에 의한 비즈니스 안내 지원 서비스
- 각 지역 안내 패키지 제공
- 기타 공항 주요 서비스 안내
- 각종 투어 및 쇼핑, 문화공연 안내 지원



데스크 이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제출처: strategy@micekorea.or.kr
- * 행사 개최일 기준 1달 전~14일 전까지 신청 가능
- * 신청서 양식 한국MICE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이용 요금 납부 후 사용 확정 안내

- * 납부처: 698537-00-000393 (국민은행)
- *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이용 납부
- * 납부 순으로 선착순 사용 확정
- * 기준일까지 미납시 데스크 사용 자동 취소

데스크 이용

사용 완료 후 정리 및 설문 참여

- * 사용한 물품 정리정돈 및 폐기
- * 이용 만족도 설문지 제출

- | 운영시간 : 성수기(07:00~21:00)/비수기(09:00~18:00), 연중 무휴
- | 장소 :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층 1층 63번 데스크(13번 출입구 부근)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도착층 1층 동편 중앙데스크(4번 출입구 부근)



제1여객터미널

제1여객터미널 1층 서편 63번 데스크(13번 출입구 부근)



제2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1층 동편 중앙데스크(4번 출입구 부근, 파리바게트 맞은편)

- | 사용대상 : 협회 회원사 및 인바운드 여행사, 학회 및 협회 주최자, 국내소재 글로벌 대기업 및 국제기구, 기타 MICE 관련기업 등
- | 이용대상 : MICE 관련 행사 참가자, 기업 비즈니스 관련 방문자, 기타 VIP 등
- | 이용요금 : 행사 별 외국인 참가자 수에 따라 상이함
- |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strategy@micekorea.or.kr)
- | 주요 서비스
 - 개최 행사 내용 안내(리플렛, 기업소개 등 홍보 가능)
 - 교통 및 숙박, 쇼핑 안내
 - 참가자를 위한 대한민국, 각 지역 안내 패키지 제공
 - VIP, 일반 기업 비즈니스 관련 방문자 환대 서비스
- | 문의 : 인천공항 컨시어지 데스크 (Tel: 032-715-5646)

사전 신청시

- 선착순 접수이며 행사 성격에 따라 복수의 업체가 공간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전 유선으로 이용 희망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와 유의사항은 날인하시어 제출하여 주십시오.
- 행사시 사용할 행사 홍보물 및 안내사항은 담당 직원에게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부득이하게 현장 파견인력이 있을 시 가능 여부를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여 주십시오.
- 현장 파견인력은 데스크 상주 전 행사 정보, 데스크 이용 주의사항 등을 교육 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장은 정장 또는 행사 유니폼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데스크 연락처(032-715-5646)를 행사 관련 문의번호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행사 진행 및 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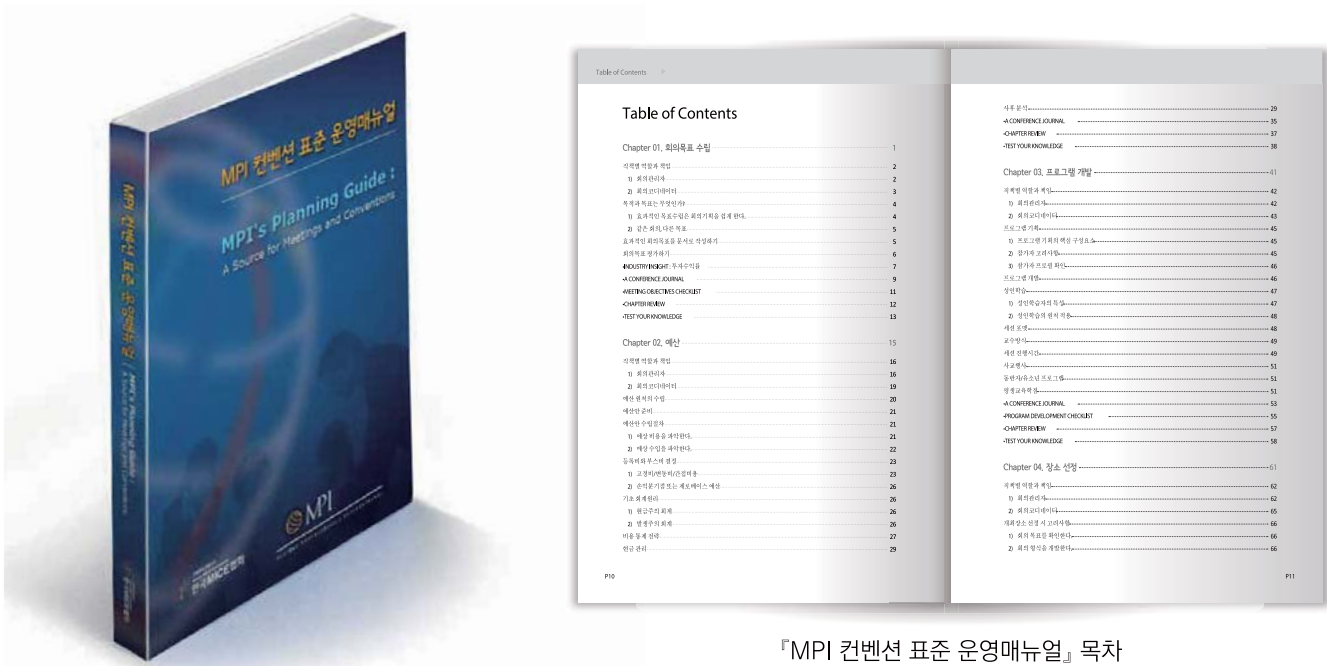
- 데스크 내 컴퓨터 및 물품 이용 시 데스크 담당 직원에게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 데스크 공용 PC는 행사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 물품 보관은 분실 우려가 높아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 행사 종료 후 행사물품은 꼭 이용업체에서 폐기하여 주십시오.
- 이용 종료 후 이용 결과보고서(설문양식)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데스크 직원은 원활한 행사를 위해 도움을 드립니다. 이는 사전 협의된 시간과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MICE 데스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현장요청은 데스크 상황에 따라 진행여부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T. 032-715-5646(컨시어지 데스크) | 02-3476-8325(협회 사무국) | F. 032-743-0329
Email. strategy@micekorea.or.kr | Homepage. www.micekorea.or.kr

MPI 컨벤션 표준 운영매뉴얼

컨벤션 운영에 입문하는 대학생이나 신입직원, 업무 관계자들을 위한 실무 컨벤션 학습서

추천 도서



『MPI 컨벤션 표준 운영매뉴얼』 목차

책 내용 살펴보기

‘MPI 컨벤션 표준 운영매뉴얼’은 한국 MICE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인재양성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된 ‘컨벤션 입문 교재’입니다.

본 교재는 미국 MPI에서 발간한 <MPI's Planning Guide : A Source For Meetings and Conventions>의 글로벌 표준 운영 매뉴얼을 번역하여, 국내 PCO 환경에 맞는 내용과 사례를 추가로 반영하여 독자의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총 17장으로 구성된 본 매뉴얼은 컨벤션 입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과 참고자료가 함께 소개되어 있으며, MICE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였습니다. 회의 목표 수립부터 예산, 프로그램 구성, 장소 선정 등의 실무를 미리 학습할 수 있으며 등록부터 실행까지 챕터별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용어와 학습 결과, 본문, 리뷰, 시험문제, 체크리스트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어, 대학교 수업의 교재, 부교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MPI 컨벤션 표준 운영매뉴얼’은 MICE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를 위한 지침서로 성공적인 컨벤션 운영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MICE협회 담당자 이승우 대리(02-6366-0716, lsw@micekorea.or.kr)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기업문화를 담어드립니다

안드로메다 스튜디오



@uncle_studio_@sungkyun_studio

기업행사 이벤트사진 프로필 스튜디오 렌탈 사내 외보 촬영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171 (옥수동, 4층) T.02 2297 9230
http://www.unclephoto.co.kr http://www.andromedaoksu.com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 COEX, SETEC, BEXCO 공식 운수통관업체 등록 **2001**
- 1999 회사설립 - 한국국제물류추진업협회 가입
- KINTEX 공식 운수통관업체 등록 / ISO 9001 인증 **2004**
- 2002 IELA(국제전시물류협회)가입, 외국인 투자회사
- 본사 사업장 확장 이전 **2006**
- 2005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장" 수상
- 경기 일산 포장센터 및 창고 설립
- 2008 송도컨벤시아 공식 운수통관업체 등록
- KOTRA 공식 운수통관업체 등록 **2009**
- 2010 본사 사옥 확장 이전(서울 성수동 지식센터)
- 베트남 호치민/하노이 사무소 설립
- 무역전시산업 발전부분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 KESPA(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물류분과 이사
- IELA(국제전시물류협회) 2011 한국총회 유치 **2011**
- 2012 한국 MICE 협회 가입
- IELA KOREA "BEST ON-SITE SERVICE" 상 수상
- ELL(Event Logistics Live) 총회 참가
-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 ISO 9001 갱신 **2013**
- 2014 세계수학자대회 공식운송사 지정
- DAVOS Forum 공식운송사 지정
- Air Cargo Forum 공식운송사 지정
- 경기도지사 "경기국제보트쇼 유공 표창장" 수상
- ITU PP 공식운송사 지정
- 세계양식학회 공식운송사 지정 **2015**
- 2016 세계한상대회 공식운송사 지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식 운송통관업체 갱신
- ASME TURBO EXPO 공식운송사 지정
- KORMARINE 2017 공식운송사 지정 **2017**
- KESPA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부회장사
- 세계원전사업자협회총회 공식운송사 지정
- 2018 SEMICON KOREA 2018 공식운송사 지정
- WORLD ECONOMIC FORUM 공식운송사 지정

Exhibition Freight Forwarder

**Official Freight Forwarder at
Korea Exhibition Site**
(COEX, BEXCO, KINTEX, EXCO,
SONGDO CONVENIA)

RM.201 ARCVALLY, 37 SEONGSUI-RO 22-GIL,
SEONGDONG-GU, SEOUL, KOREA (04798)

EXHIBITION TEAM 1 TEL: 02-565-3715 / FAX : 02-553-0731

EXHIBITION TEAM 2 TEL: 02-565-3400 / FAX : 02-553-8458

info@kemi-lee.co.kr



KEMI-LEE CO., LTD.
EXPO SERVICE & LOGISTICS